

### ‘사회적 보상/처벌’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 우리 사회 ‘사회적 보상/처벌’에 대한 생각
  - \_ 공동체 기여자, 인정 56%  
/ 공동체 해한자, 비난사회 60%
  - \_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공동체 해한자, 비난 사회’ 우세
  - \_ 국민들,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로 생각
- ‘사회적 보상/처벌’과 개인 행동 분석
  - \_ 평소 주변사람 평가, ‘의식한다’ 71%
  - \_ ‘부모/자녀/형제’와 ‘배우자’ 평가 가장 의식
  - \_ 2030세대, 전반적으로 ‘인정’ 욕구 더 높아
  - \_ 여자 4050세대, ‘비난’ 두려움 높아
  - \_ 남녀 60대이상, 가족 외에서의 ‘비난’ 두려움 높아
  - \_ 진보층, ‘비난’ 두려움 상대적으로 높아
- 인간관계 ‘인정/비난’ 기반 유형 분석
  - \_ 조사결과 추가 분석 통한 유형화 결과
  - \_ 유형별 인구특성 분석

##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4월 9일(금) ~ 4월 11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9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2.96\%$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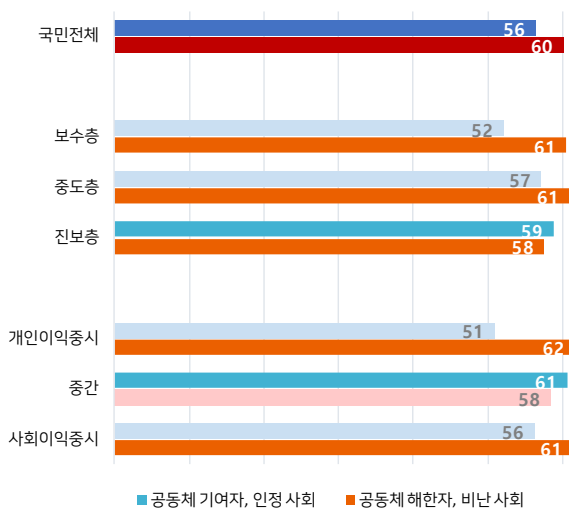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 우리 사회 '사회적 보상/처벌'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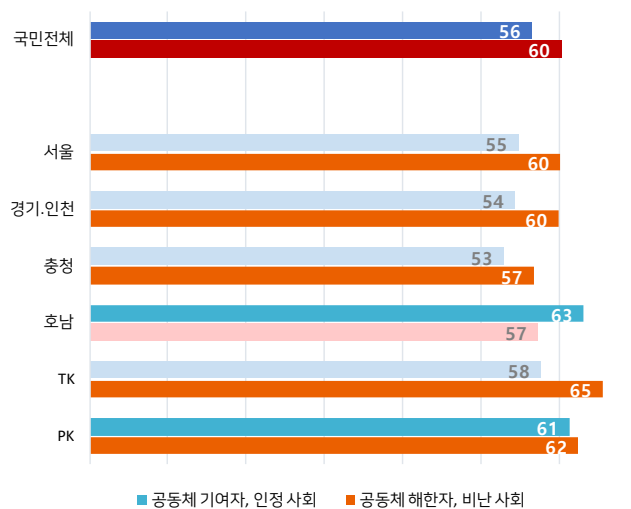
### □ 공동체 기여자, 인정 사회 56% / 공동체 해한자, 비난 사회 60%

-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규칙 중 하나가 공동체에 기여한 사람은 '보상'을 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은 '처벌'을 하는 것임
  - '사회적 보상'에는 인정과 칭찬, 명예와 같은 무형의 가치와 특별 대우, 물질적 포상 등이 있음
  - '사회적 처벌'은 대부분 사회적 보상의 반대개념으로 비난, 불명예, 배제, 물질적 손해 강제 등이 있음
  - 이러한 '사회적 보상'과 '사회적 처벌'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관습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음
-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상에 있어 국민 중 56%는 '인정하는 사회'라고 응답했고, 44%는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고 응답함
  -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부를 하는 등 사회공동체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임
- 또한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사회' 60% vs '비난하지 않는 사회' 40%로 조사됨
  - "우리 사회에는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면서 사회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임
- 두 결과를 종합해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정'보다 '비난'이 우세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
  - '비난' 의견이 더 높은 계층은 △보수층, 중도층 △개인이익중시층, 사회이익중시층 △서울, 경기.인천, 충청, TK 등임
  - '인정' 의견이 더 높은 계층은 △이익중시 중간층 △호남 등이고, 진보층과 PK는 거의 같은 비중을 나타냄

우리사회 인정/비난 상황 평가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 조사,단위:%)



우리사회 인정/비난 상황 평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 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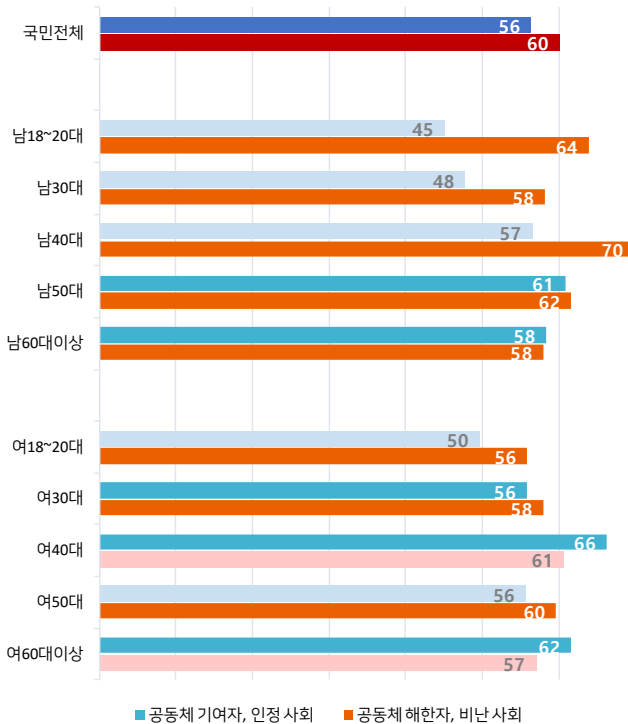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우리 사회의 '사회적 보상/처벌 규칙'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국민이 절반을 넘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국민도 상당함 : 44%의 국민은 공동체에 기여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 생각하고, 40%의 국민은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큰 규모임
- ☑ 이렇듯 '사회적 보상/처벌 규칙'이 취약한 사회는 공정, 정의, 공익 등 사회적·도덕적 가치가 허약한 사회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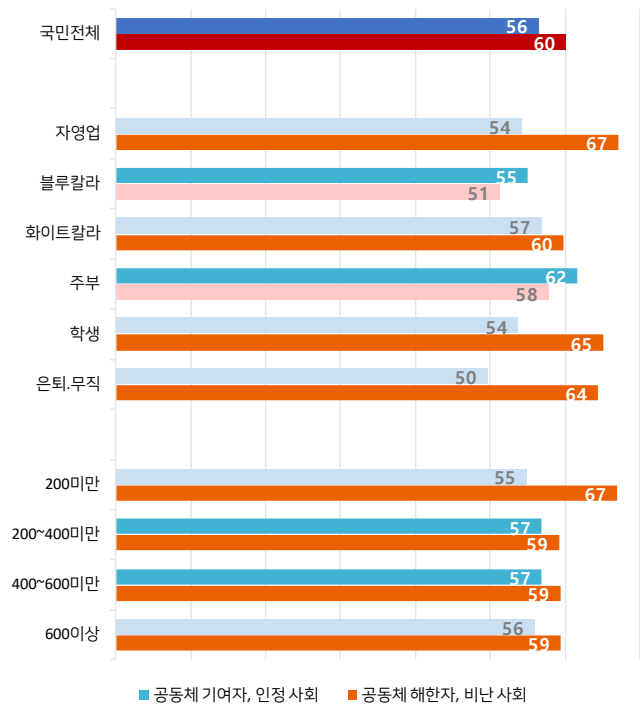
## □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공동체 해한자, 비난 사회' 우세

- 조사결과를 성/연령별, 직업별, 소득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공동체 기여자, 인정 사회'라는 응답에 비해 '공동체 해한자, 비난 사회'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두 응답 간의 격차가 크면서 '공동체 해한자, 비난 사회'라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40세대 △여자 18~20대, 여자 50대 △자영업, 화이트칼라, 학생,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 두 응답 간 격차가 비슷하거나 '공동체 기여자, 인정 사회'라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3040세대, 여자 60대이상 △블루칼라, 주부 △200만원 이상 소득계층 등임
- 한편, '공동체 기여자, 인정사회'가 50% 이하로 낮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여자 18~20대 △은퇴.무직자 등임

우리사회 인정/비난 상황 평가: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우리사회 인정/비난 상황 평가: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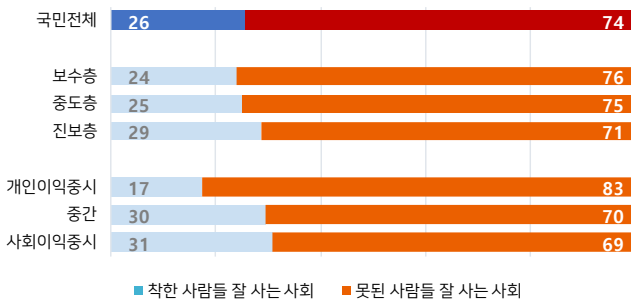
### Kstat Point

- ☑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보상'에는 인색하고, '처벌'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함
  - 이러한 의견이 가장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로 이들은 '인정 사회'라는 응답이 50%에 못 미치고, '비난 사회'라는 응답은 높은 편임
  - 다른 계층에서도 '인정 사회'라는 응답에 비해 '비난 사회'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임
- ☑ 즉, '사회적 보상/처벌 규칙'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사회면서, 기형적으로 '처벌'이 강하다는 의견으로 종합됨
  - 사회적 보상/처벌 규칙, 즉 사회구성원들이 법·제도·관습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불철저하게 이행되는 사회에서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등 그 자체로 큰 문제임
  - 이러한 사회에서는 공동체 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각자도생' 풍조가 뚜렷해지는데, 최근 우리 사회가 그런 양상임
  - 여기에 '처벌'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회는, 근래 우리 사회처럼 서로를 감시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사회분 위기가 조성된다는 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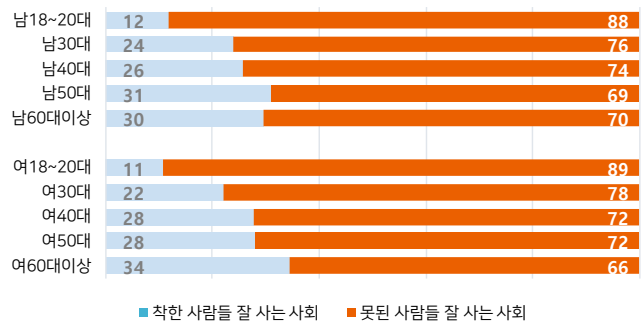
## □ 국민들,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로 생각

- 국민들은 평소 우리 사회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아닌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선생님은 평소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 26% vs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 74%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라는 응답이 우세해, 국민들 모두의 한결같은 생각으로 보임
-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라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보수층 △개인이익중시층 △남자 2030세대 △여자 2030세대 △경기.인천, 충청, 호남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진보층 △이익중시 중간층, 사회이익중시층 △남자 5060세대 △여자 60대이상 △서울, PK △주부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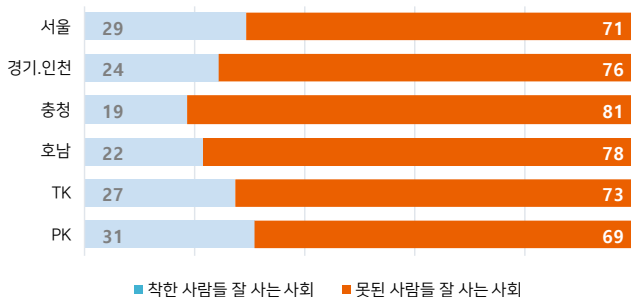
평소 우리사회 인식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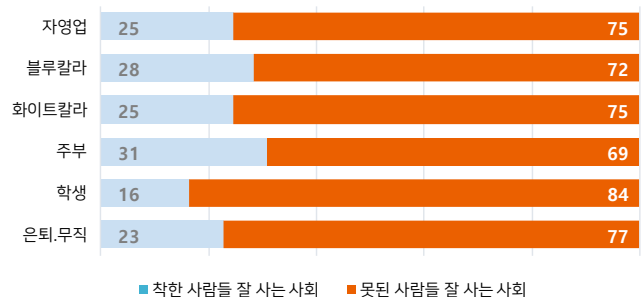
평소 우리사회 인식 : 성/연령별(자료:케이스탯,단위:%)



평소 우리사회 인식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평소 우리사회 인식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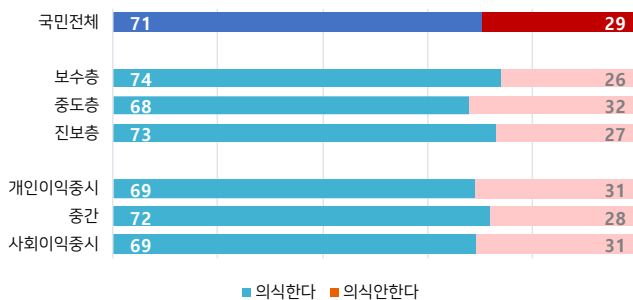
- ☑ 사회적 보상/처벌 규칙이 불완전한 우리 사회가 도달한 지점은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임  
: 국민들이 지금의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구성원 간에 법·제도·관습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지키지 않으면서 '못되게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회라는 것임
- ☑ 특히 2030세대가 이런 생각이 강한데, 우리 사회에 대한 젊은층의 불만과 비판적 태도는 매우 확고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는 아니면서 '착한 사람'인 양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 강하게 분노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30세대의 여권 지지 철회 배경에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여권 인사들에게서 이러한 사례가 속출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사회적 보상/처벌'과 개인 행동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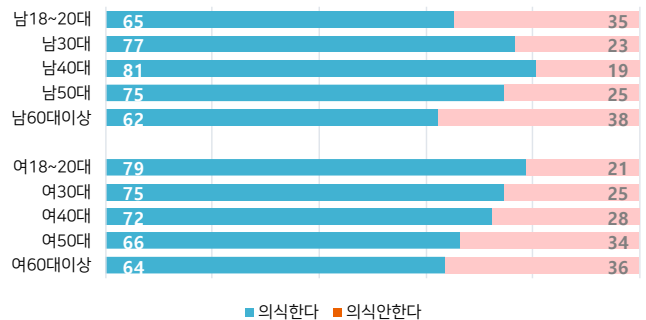
### □ 평소 주변사람 평가, '의식한다' 71%

- 우리 국민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평소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한다'는 국민은 71%이고, '의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임
  - “선생님께서서는 평소 사회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시나요, 의식을 안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임
- 모든 계층에서 '의식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3050세대 △여자 2030세대 △TK △학생 등임
- '의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60대이상 △호남 △자영업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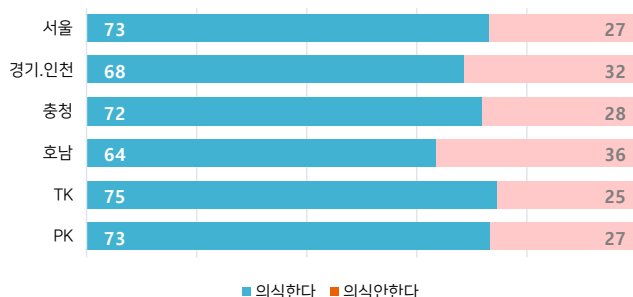
주변사람 평가 의식 여부: 국민전체, 이념별, 이억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1.04.11 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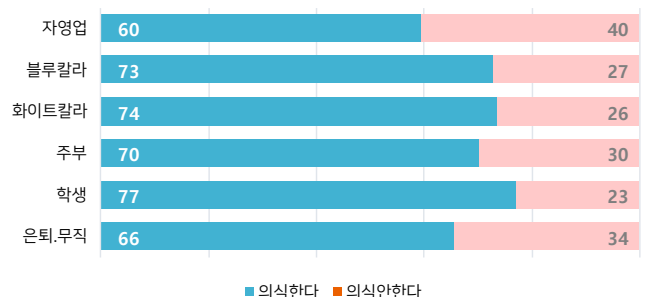
주변사람 평가 의식 여부: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 단위:%)



주변사람 평가 의식 여부: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1.04.11 조사, 단위:%)



주변사람 평가 의식 여부: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1.04.11 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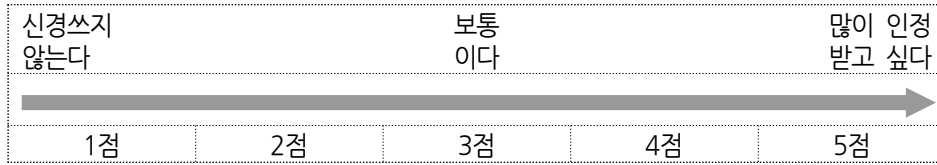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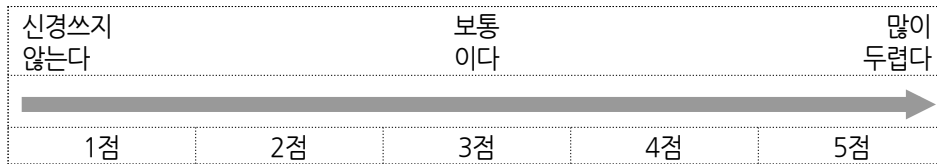
- ☑ 우리 사회의 '사회적 보상/처벌 규칙'이 다소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신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면서 생활하고 있음
  - : 이른바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기본 속성의 결과로 보임

## □ '부모/자녀/형제'와 '배우자' 평가 가장 의식

- 주변 사람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대상에 대한 '인정' 희망과 '비난' 두려움을 조사함
- “선생님은 평소, 다음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고 싶으세요?”라고 질문한 이후 5점 척도로 응답토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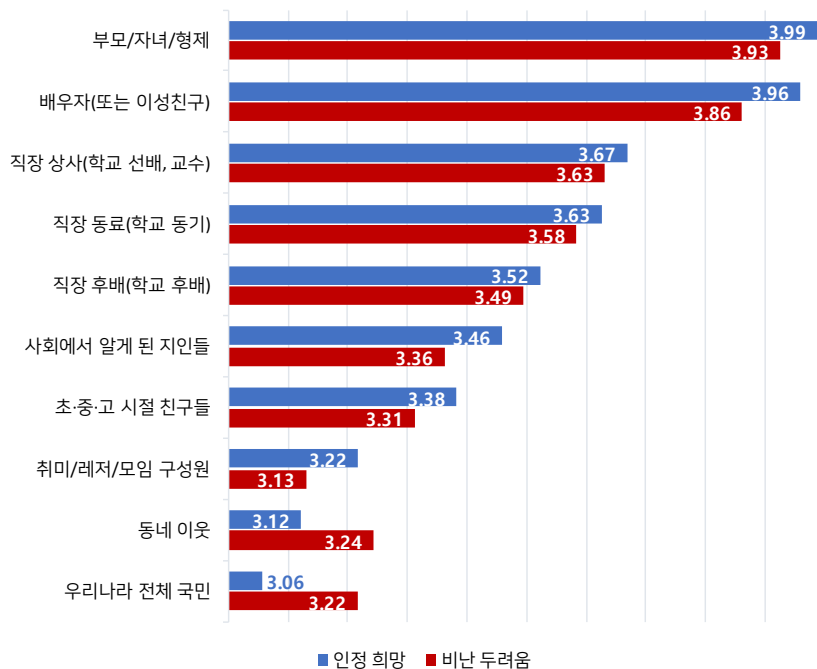


- 또한 “만약 선생님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경우, 다음 사람들의 비난이 어느 정도 두려우세요?”라고 질문한 이후 5점 척도로 응답토록 함



- 조사 결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은 '부모/자녀/형제'와 '배우자(또는 이성친구)'로 나타남
- '부모/자녀/형제'에게 가장 '인정' 받기를 희망하고(3.99점), '비난' 두려움도 가장 컸음(3.93점)
- 다음으로 '배우자(또는 이성친구)'의 '인정'을 희망하고(3.96점), '비난'을 두려워함(3.86점)

인간관계별 '인정' 희망 / '비난' 두려움 인식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2021.04.11 조사, 단위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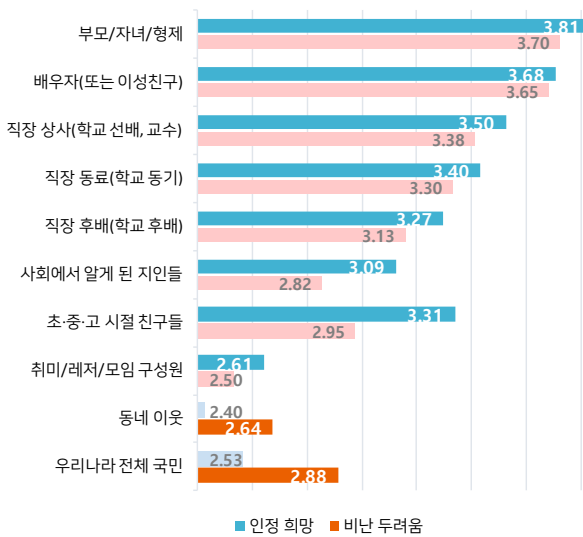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지만,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는 가족(부모/자녀/형제와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남('인정' 희망과 '비난' 두려움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함)
- ☑ 이는 '사회'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 현실의 반영으로, 사회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으로 보임 : 우리 국민들은 사회전체 행복보다 가족의 행복을 중시하는 '가족주의' 경향이 강함
- ☑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5호 『사회,가족,개인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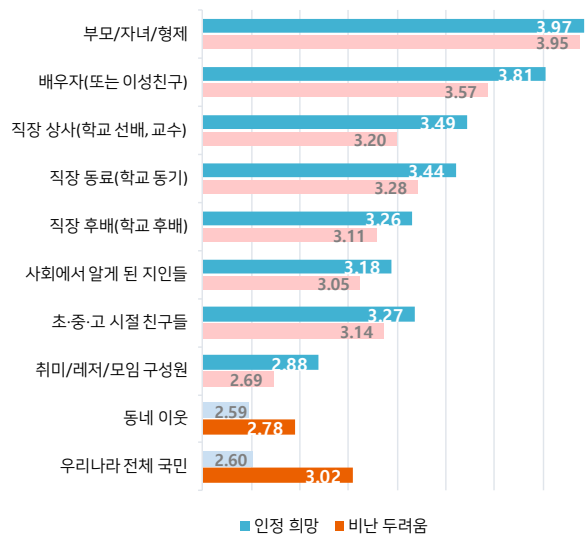
## □ 2030세대, 전반적으로 '인정' 욕구 더 높아

- 응답결과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남녀 20대가 중시하는 인간관계는 국민전체와 동일하게 '부모/자녀/형제'와 '배우자(또는 이성친구)'로 나타남
- 이에 비해 남녀 30대는 '배우자(또는 이성친구)'의 '인정' 희망이 근소하게 더 높았음
- 또한 2030세대 모두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비난' 두려움보다 '인정' 희망이 높게 나타남
  - '비난' 두려움이 더 높은 대상은 남녀 20대의 경우 '동네 이웃'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었고,
  - 남녀 30대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 한정됨(남자 30대는 '부모/자녀/형제'의 '인정' 희망과 '비난' 두려움이 비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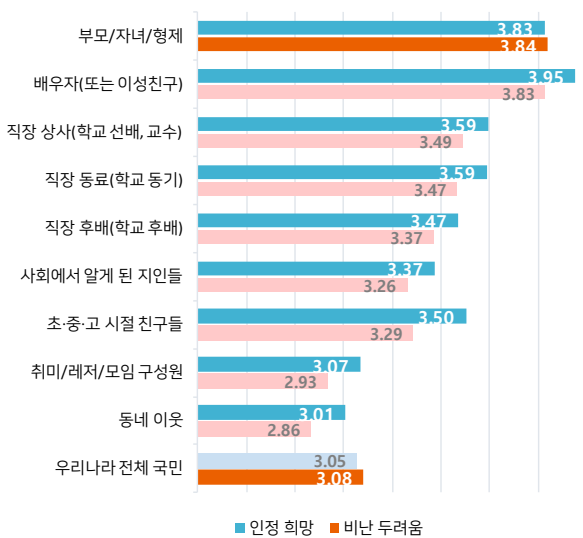
남자20대 : 인간관계별 '인정'희망 / '비난'두려움 인식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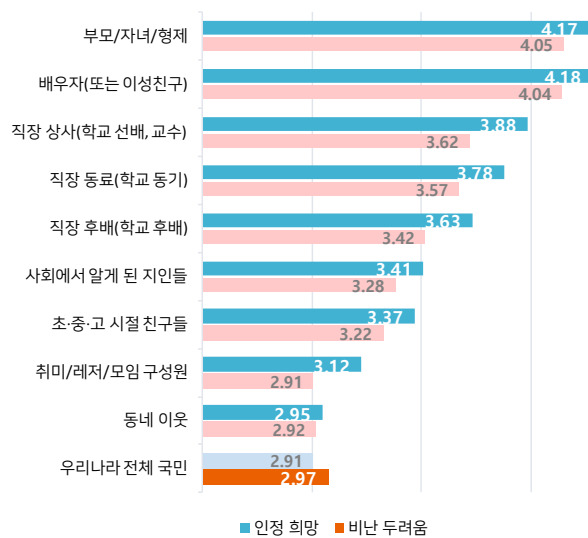
여자20대 : 인간관계별 '인정'희망 / '비난'두려움 인식 (단위:점)



남자30대 : 인간관계별 '인정'희망 / '비난'두려움 인식 (단위:점)



여자30대 : 인간관계별 '인정'희망 / '비난'두려움 인식 (단위:점)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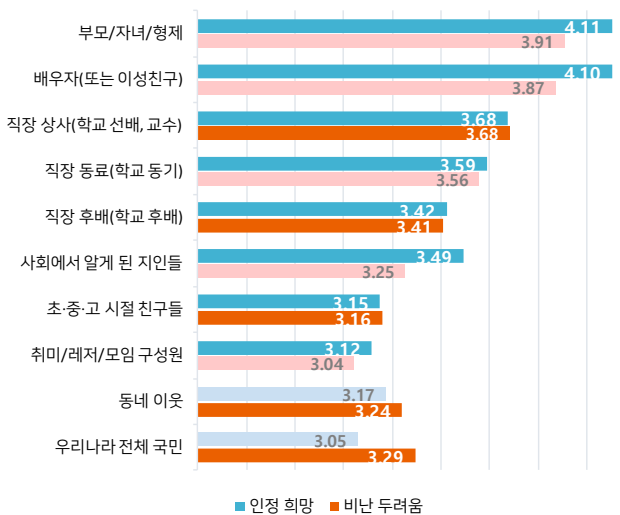
- ☑ 남녀 2030세대는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비난' 두려움에 비해 '인정' 희망이 높은 특징을 보임
- ☑ 사회생활 초년(20대)이자 의욕적으로 사회관계를 맺어가는(30대)의 세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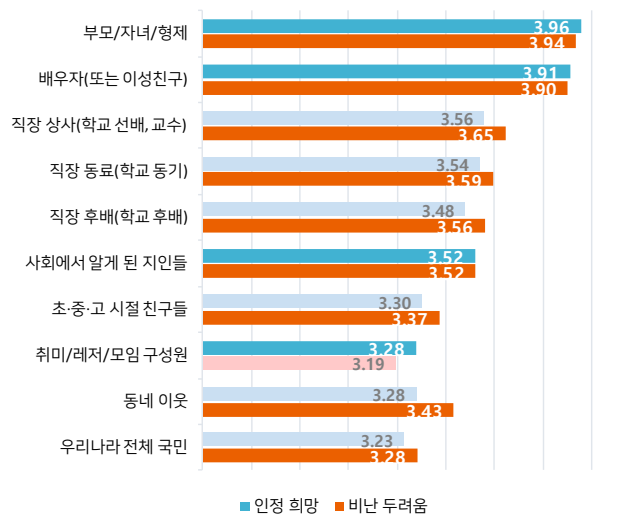
## □ 여자 4050세대, '비난' 두려움 높아

- 여자 4050세대는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인정' 희망보다 '비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여자 40대는 '취미/레저/모임 구성원'에서만 유일하게 '인정' 희망이 높음
  - 여자 50대는 '배우자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 '취미/레저/모임 구성원'에서 '인정' 희망이 높음
- 남자 4050세대는 국민전체 점수와 마찬가지로 '인정' 희망이 높음
  - 다만, 남자 40대의 경우 '직장 상사와 '직장 후배', '초·중·고 시절 친구들'에서 '인정' 희망과 '비난' 두려움이 비슷한 수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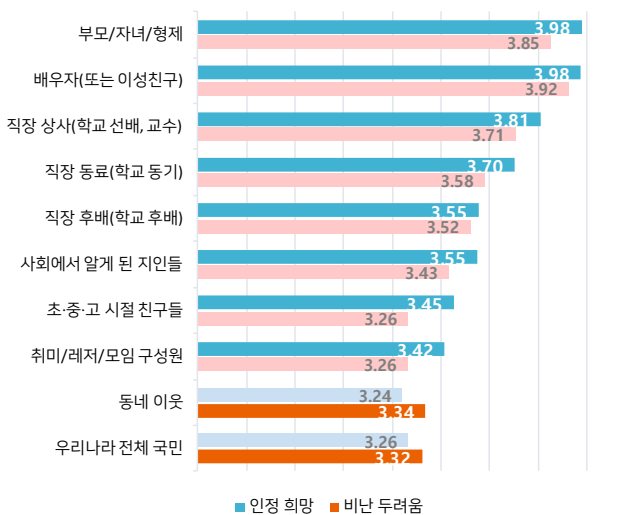
남자40대 : 인간관계별 '인정'희망 / '비난'두려움 인식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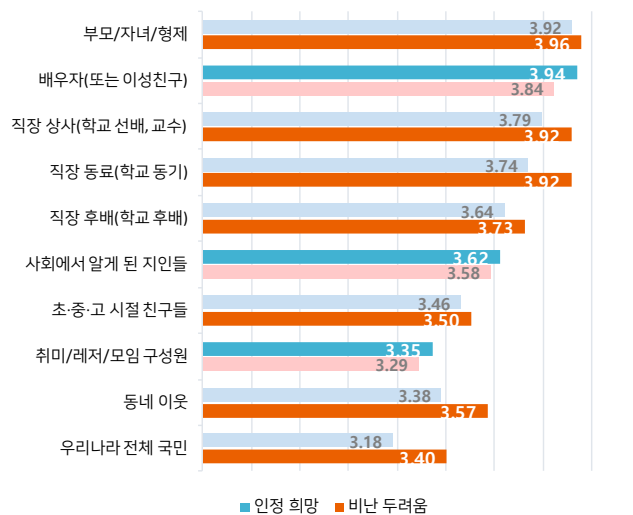
여자40대 : 인간관계별 '인정'희망 / '비난'두려움 인식 (단위:점)



남자50대 : 인간관계별 '인정'희망 / '비난'두려움 인식 (단위:점)



여자50대 : 인간관계별 '인정'희망 / '비난'두려움 인식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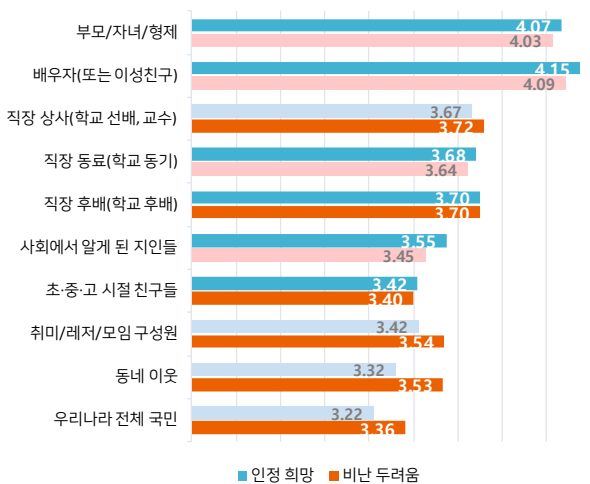
### Kstat Point

- ☑ 남·여 2030세대와 달리 여자 4050세대는 '비난'받는 것을 많이 의식하는 특징을 보임
  - : 이는 여자 4050세대의 경우 사회관계가 안정되었기에(주로 아는 사람들), 이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보다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신중함이 부각된 결과로 분석됨
- ☑ 남자 4050세대는 안정된 사회관계를 더욱 확장하는 특성을 보이면서 '인정'욕구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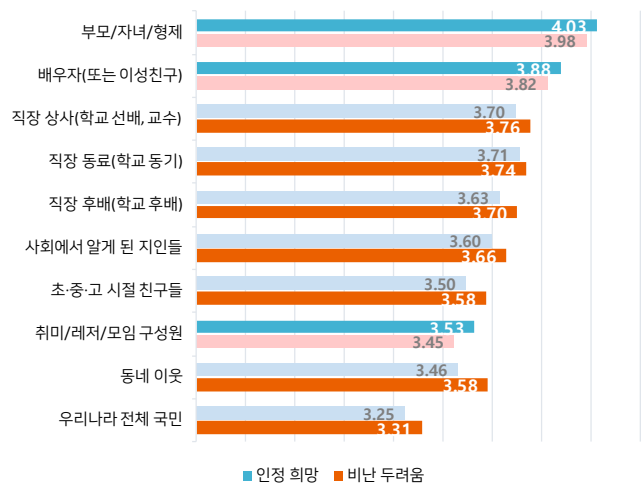
## □ 남녀 60대이상, 가족 외에서의 '비난' 두려움 높아

- 남녀 60대이상의 경우 가족에서는 '인정' 희망 욕구가 높고, 가족을 벗어난 인간관계에서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자녀/형제'와 '배우자'에 대해서는 '인정' 희망 욕구가 더 높지만 이를 벗어난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비난' 수치가 더 높음
  - 남자 60대이상의 경우 예외적으로 '직장동료'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서 '인정' 희망 욕구가 더 높음
  - 여자 60대이상의 경우 예외적으로 '취미/레저/모임 구성원'에서 '인정' 희망 욕구가 더 높음

남자60대이상 : 인간관계별 '인정'희망 / '비난'두려움 인식 (단위:점)



여자60대이상 : 인간관계별 '인정'희망 / '비난'두려움 인식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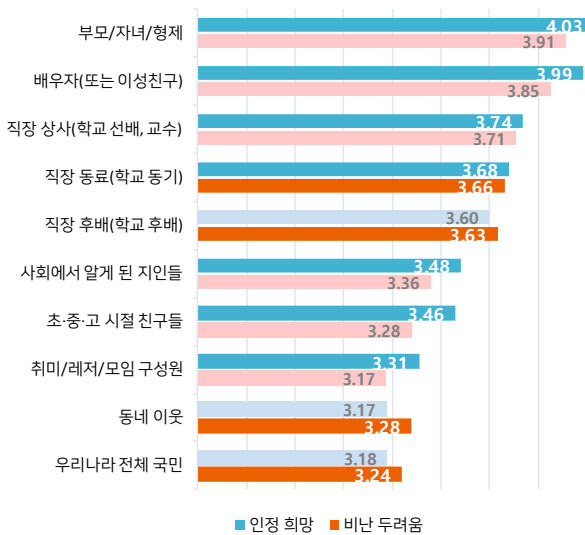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사회관계(인간관계)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인정' 희망 욕구와 '비난' 두려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임
  - : 남녀 2030세대는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가는 시기로 사람들에게 '인정' 받기를 원하고,
  - : 4050세대 중 남자는 인간관계가 안정되었지만 그 폭을 더욱 넓혀가는 과정에서 '인정'을 욕구하며,
  - : 여자 4050세대는 인간관계의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비난' 받을만한 행동에 유의하는 것으로 보임
  - : 남녀 60대이상도 인간관계가 안정되어 있어 '비난'을 의식하는 것으로 판단됨
- ☑ 이렇게 볼 때 한창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2030세대에게 '실업'은 다른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상실감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 '청년실업'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요즘의 심각한 취업난은 이러한 상실감을 공포감으로 확장시키고, 혹 자신이 취업 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는지 끊임없이 긴장하고 경계토록 강제하고 있음('공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
  - :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역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분출 형태 중 하나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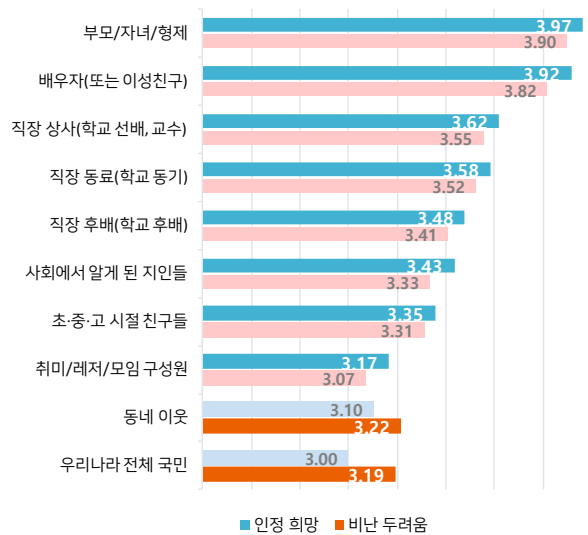
## □ 진보층, '비난' 두려움 상대적으로 높아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중도층은 국민 전체와 동일하게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인정' 욕구가 높고, '동네 이웃'과 '우리나라 전체국민'에 대해서만 '비난' 두려움이 높음
- 이에 비해 보수층은 '비난' 두려움이 직장 동료와 직장 후배로 확장되고, 진보층은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비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진보층은 '배우자'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서 '인정' 희망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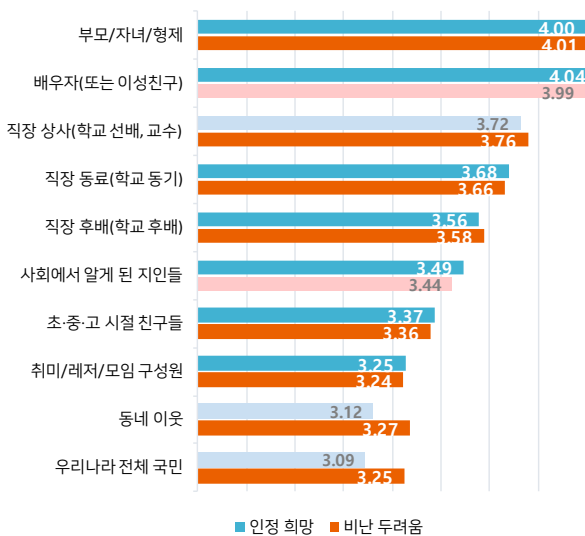
보수층 : 인간관계별 '인정'희망 / '비난'두려움 인식 (단위:점)



중도층 : 인간관계별 '인정'희망 / '비난'두려움 인식 (단위:점)



진보층 : 인간관계별 '인정'희망 / '비난'두려움 인식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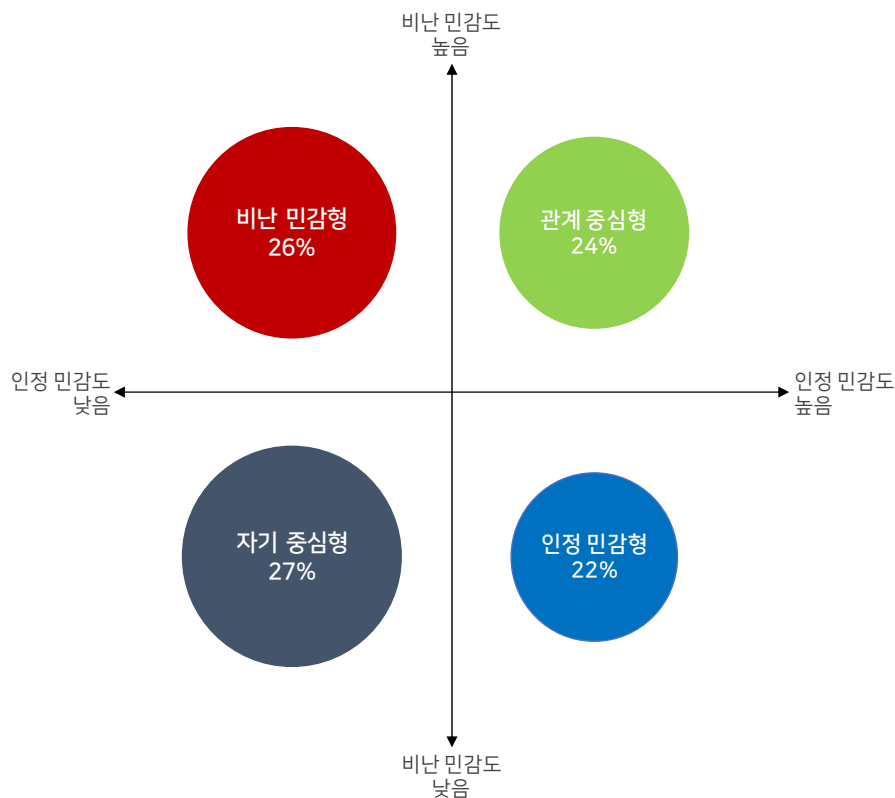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진보층에 대한 통념 중 하나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임한다는 점임 : 이는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이 강하다는 진보층 특성의 확장형임
- ☑ 그러나 이러한 통념과 달리 진보층이 '비난'을 두려워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로운 대목임

## ▶ 인간관계 '인정/비난' 기반 유형 분석

### □ 조사결과 추가 분석 통한 유형화 결과

- 앞서의 계층별 분석은 계층에 주목한 결과 분석으로, 개개인의 응답결과가 계층별 평균값으로 수렴되면서 개인적 특성이 사라지게 됨
  - 국민전체 분석을 할 경우, 계층별 응답값이 국민전체로 수렴되면서 각 계층별 특성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유임
- 이에 개개인이 인간관계별 인정/비난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추적, 개인적 특성을 되살리는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함
  - R의 poLCA 패키지를 이용,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행했으며, '인정' 관련 10개 문항과 '비난' 관련 10개 문항에 대해 개개인이 응답한 결과를 모델링함
- 추가 분석한 결과 '인정 민감도 높음/낮음' 축과 '비난 민감도 높음/낮음' 축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이 추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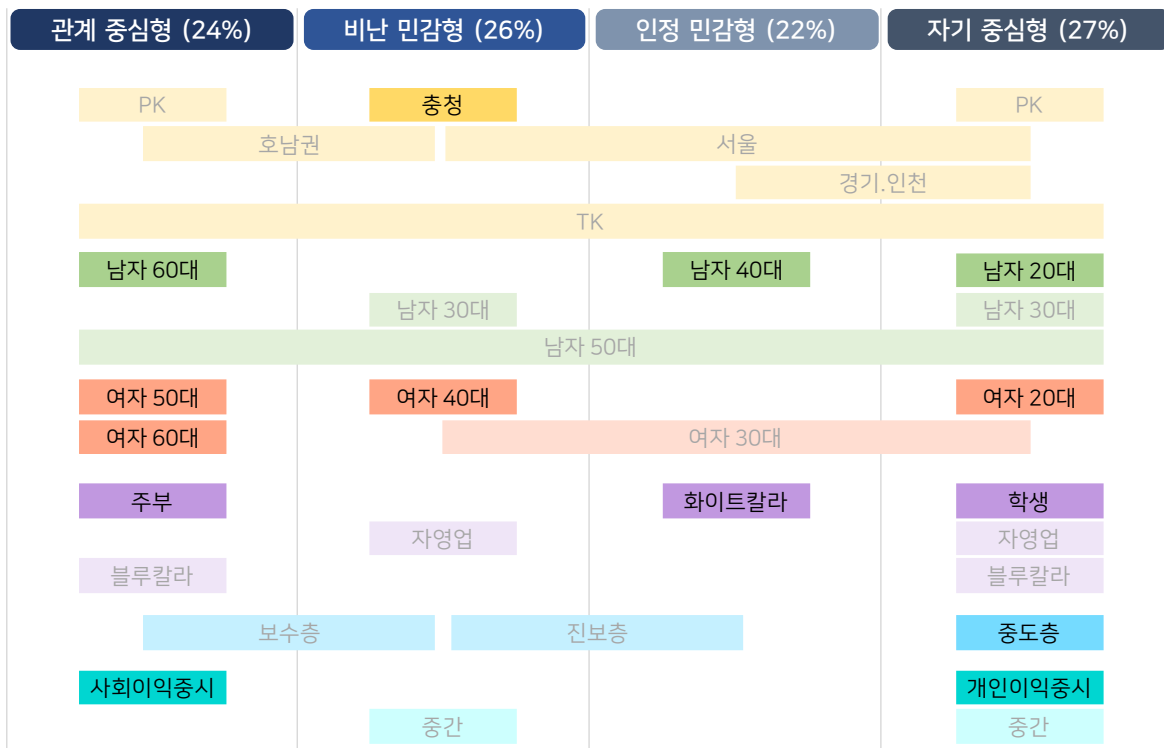
- 인정민감도 높음 + 비난민감도 높음 : **관계 중심형**, 국민 중 24%
- 인정민감도 낮음 + 비난민감도 높음 : **비난 민감형**, 국민 중 26%
- 인정민감도 높음 + 비난민감도 낮음 : **인정 민감형**, 국민 중 22%(가장 적음)
- 인정민감도 낮음 + 비난민감도 낮음 : **자기 중심형**, 국민 중 27%(가장 많음)

Kstat Point

- ☑ 4개 유형화 분석결과는 응답자 간 상대값으로 국민 개개인 간 상대적 거리를 의미함
- ☑ 또한 개개인이 4개 유형 중 하나에 확률적으로 높게 속한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한 유형에 속한다는 것은 아님

## □ 유형별 인구특성 분석

- 각 유형별 인구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계층은 하나의 유형에 속하고(진한 글씨), 어떤 계층은 두 개 이상에 속함(흐린 글씨)
  - 즉, 응답자 개개인이 4개 유형 중 하나에 속하는 확률이 매우 높으면 단일 유형에 배치했고, 확률이 비슷할 경우 해당하는 유형 모두에 배치한 결과임
-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확률이 뚜렷한 계층, 즉 그 특징이 분명한 계층은 다음과 같음
- **[관계 중심형]** : △남자 60대이상 △여자 5060세대 △주부 △사회이익 중시층
- **[비난 민감형]** : △충청권 △여자 40대
- **[인정 민감형]** : △남자 40대 △화이트칼라
- **[자기 중심형]** : △남자 20대 △여자 20대 △학생 △중도층 △개인이익 중시층



### Kstat Point

- ☑ [관계 중심형]과 [자기 중심형]은 그 특징이 뚜렷이 대비되는 유형이자 계층별 특징도 분명함
  - : 인정과 비난 모두에 민감한 [관계 중심형]에는 남자 60대이상과 여자 5060세대가 위치함
  - : 인정과 비난 모두에 둔감한(가죽은 예외) [자기 중심형]에는 남자 20대와 여자 20대가 속해 대비됨
  - : 이들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인식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됨
- ☑ 한편,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속한 유형이 다른 점은 흥미로움
  - : 중도층은 자기 중심형이 뚜렷하고, 보수층은 인간관계 모두를 중시하면서도 비난에 민감함
  - : 진보층은 비난에 민감하거나 인정에 민감한 유동성이 강한 모습을 보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케이스탯 리포트 27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27호는

5월 13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